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23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2월 6일 (음력 11월 9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6(土)	7(日)
구름 많고 눈 -6/0℃	구름 많음 -6/8℃

News

• "광역경제권 보완해야" ②
• 대인시장 상인들의 기부 ③
• 해태맨들 "영광 다시한번" ⑱

Books

• 이승우 '오래된 일기' ⑭

Entertainment

• 따뜻한 가족의 재발견 ⑧

• 애니메이션 세상 열린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계피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불황속 억대 매출 무안 화훼농 정남식씨 /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을 도입, 국화 재배 비용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한 정남식씨가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돌아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난방 시설 바꾸니 기름값 ⬇ 국화 품질 좋아지고 소득 ⬆

"난방시설을 바꾸면 고유가 파고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절전형 보온시설을 도입해 기름을 덜 쓰고도 질 좋은 국화를 생산하고 있는 하우스 농가가 있다. 주인공은 무안군 청계면에서 2천평의 비닐하우스에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정남식(42)씨.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로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씨가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작한 것은 군대를 마친 지난 1992년. 처음에는 다른 농가와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에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기름값이 많이 들고 수확 시기도 일정치 않아 일손이 달리는 등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에너지 절약형 효과

그래서 수확 시기가 일정한 국화 재배를 생각하게 됐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화훼 농사에 뛰어들었다. 장례식장용으로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짭짤하다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권유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씨의 고민은 항상 비싼 기름값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름값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비닐하우스 내 온도를 적정온도인 섭씨 1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비용 때문에 13~15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낮은 온도로 인해 수확 시기가 길어지고 꽃의 품질도 나빠 출하시 제값을 받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던 중 정씨는 2년 전인 지난 2006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를 찾게 됐고, 기술센터에서 농진청이 보급하는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이 효과가 크다는 걸 알게 됐다. 정씨는 곧바로 농진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부직포를 이용한 다겹 보온커튼과 연통을 통해 빠져나가는 폐열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배기열 회수장치를 설치, 난방비를 대폭 줄이고 질 좋은 국화를 생산하는 이중 효과를 보게 됐다.

당장 절전시설을 도입하기 전 월평균 350만원의 유류대를 28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 종전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면서도 섭씨 16도 보다 높은 18~20도 유지할 수 있어 꽃의 색깔이 좋아지고 꽃대가 튼튼해지는 등 품질도 대폭 개선됐다.

유가 월 70만원 줄여

여기에 밀식재배를 피하고 병해충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정씨만의 영농기술이 더해져 고품질 국화 생산비율이 30%에서 80%로 향상됐다.

이처럼 고품질 국화를 생산하게 되자 일본 수출길도 열렸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출, 올 10월 말 현재 50만본, 1억여원의 수출고를 올렸다. 정씨는 지난해 매출 1억5천만원에, 순수익 5천여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일본 수출물량이 늘어나 7천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도청 별관 철거 지지"

광주 일부 시민단체들 "국책사업 현실성 감안"

논란 해결 주목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조성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과 관련,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별관 철거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5개월 동안 진행돼온 논란이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도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5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주최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도청별관의 상생전략' 집담회에 참석한 7개 시민단체 가운데 4곳은 "도청 별관 철거를 전제로 한 아시아문화전당의 당초 설계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단체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동구비상대책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지회 등 4개 단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 민예총은 내부의견 결집 미비를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철거를 지지한 4개 단체는 "도청 별관의 역사적 가치도 인정하지만, 국책사업의 현실성을 감안해 기존 설계안대로 별관을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책이다"고 주장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단체들은 "그동안 도청 별관 문제에 대해 깊숙한 토론을 갖지 못했다"며 "단, 역사적인 국가사업에 있어 갈등과 대립,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같은 각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8일께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철거를 반대해 온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공대위'(공대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추진단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선재규 교류협력과장은 모두 발언에서 별관 철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공대위 안성옥 대외협력국장은 "건축설계 전문가들도 1~2개월이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이제라도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與野, 새해 예산 12일 처리 합의

재정위 감세법안 처리

민주당은 5일 "여야가 오는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전화통화를 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전에 만나 12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처리에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협상을 재개, 김 의장이 내놓은 '12일 처리' 중재안을 놓고 조율했으나 시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날짜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인하키로 했다. 2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상무지구 MK타워 5층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기소리·세기보청기